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4 pp. 169-176,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4.16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1], 최윤희[2*]
[1]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2]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on Youth Children's Self-Regulation

Hyuk-Jun Moon[1], Yun-Hee Choi[2*]
[1]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2]Department of Living Culture Studies,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58명, 그들의 담임교사 28명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행동조절보다는 정서조절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비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of teacher-child interaction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358 young children, their mothers and their 28 teachers. Data were analyzed with statistics using the SPSS Win 18.0 ver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fant self-regulation. Between them, the child-teacher interaction had a greater effect than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ng emotional regulation more than behavioral regulation. The study results confirmed th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interaction of the child-teacher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on mother's discipline and teacher's interac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eywords :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Teacher-Child Interaction, Children's Self-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1. 서 론

모든 인간은 사회 안에서 어울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현대사회는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구조와 형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재생산 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Choi(Catholic Univ.)
Tel: +82-2-2164-4317 email: eunice@catholic.ac.kr
Received January 3, 2019 Revised January 23,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발달하고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며 구성원들은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간다. 이렇듯 사회 속에서 한 때를 살아가는 인간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어울어져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성인, 또는 타인에 의해 전수되는 것인데[2] 초기에는 타인에 의해 행동을 조절하지만 점차 스스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사회에서 용납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인데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3].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연구한 Kopp[4]는 자기조절능력의 범주를 크게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의 2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5][6]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이 3가지 범주가 인정되는 추세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이후의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관련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학업성취, 교우관계, 문제해결능력 등에 문제가 야기되며 이는 곧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7][8]. 자기조절능력은 유아, 아동기동안 외부에서 내면으로 전이되는 발달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데[9] 처음에는 타인의 가르침과 요구에 의해 조절하지만 점차 가치기준이 내면화되면서 스스로의 통제를 통해 자기조절을 하는 단계로 발전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가르침과 조절에 의존하는 생의 초기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양육자이다[4].

일반적으로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훈육의 방식은 자녀의 성품과 자기조절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적 통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Barber[10]는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애정을 매개로 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이라고 하였다. 논리적 설명이나 애정적 훈육방식과 달리 자녀의 행동이나 주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특권 박탈, 수치심 느끼게 하기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한 통제는 오히려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이는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좌절시키며 결국 자율에 기반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강압적 훈육방식의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강압적이거나 체벌을 사용하는 훈육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정서적 통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 연구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양육자 변인과 함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기관의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른 시기에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사는 유아에게 부모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인이 되었다[13]. 유아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교사와 함께 지내며 교사로부터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유아는 이곳에서 또래들을 만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한 곳이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에게 관계형성의 모델이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개입과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14]. 또한 규칙과 약속을 가르치고 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교사의 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고, 상호 협조적이지만[15] 상호작용 빈도가 낮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를 통해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17][18]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 변인과 관련된 연구, 혹은 그보다 적은 양의 교사 변인 관련 연구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시대의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둘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본 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와 어머니 358쌍과 담당교사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5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시작하는 때이고 주도적 행동으로 자율성의 발달을 이루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9]. 이를 위하여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 응답의 결측과 동일답안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남아가 182명(50.8%), 여아는 176명(49.2%)으로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었다. 담당교사의 연령은 20대가 21명(75%), 30대가 7명(25%)으로 20대가 더 많았다. 경력은 1~2년이 10명(35.8%), 3~4년이 9명(32.1%), 5년 이상이 9명(32.1%)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8)

variable		n	%
Child's sex	boy	182	50.8
	girl	176	49.2
Teacher's age	20s	21	75
	30s	7	25
Teacher's teaching experiences	1-2yrs.	10	35.8
	3-4yrs.	9	32.1
	over 5yrs.	9	32.1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0]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전숙영[2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아이의 일에 자주 참견한다', '나는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차갑게 대한다' 등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죄책감 유발 등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총 16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2.2 유아-교사 상호작용

유아-교사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dekamp[21]의 ECOI(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를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22]이 일부 수정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2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유아-교사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묻는 6문항(예: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과 유아-유아의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교사의 지원 4문항(예: 협동하기, 차례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2.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조절능력과 행동조절능력을 각각 조사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은 Cicchetti와 Shields[24]의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25]이 번안한 것 중 정서통제 8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 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8이다.

행동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ralinski와 Kopp[26], Kalpidou[27]의 도구를 정은주[28]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에 순응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도구로써 교사가 평정하는 설문지이다. 2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행동조절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8이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과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다[Table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평균이 2.13(*SD*=.34)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3.50(*SD*=.31)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정서조절은 3.13(*SD*=.47), 행동조절은 3.56 (*SD*=.56)의 평균값이 나타났는데 행동조절의 평균값이 높아 교사들이 지각하기에 유아들의 행동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표준편차 값을 보면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	*S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358	2.13	.34
teacher-child interaction		358	3.50	.31
child's self-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358	3.13	.47
	behavioral regulation	358	3.56	.56

3.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VIF 값이 1.0과 1.32로 10보다 작아 변인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F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해 선형 회귀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β=.43, p<.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20,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조절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 또한 유아-교사 상호작용(β=.33, p<.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13, p<.05)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N = 358)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B	β	B	β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27	-.20***	-.21	-.13*
teacher-child interaction	.65	.43***	.60	.33***
F	52.57***		26.34***	
R^2	.23		.13	
adj. R^2	.22		.12	
VIF	1.00		1.00	

*p<.05. ***p<.001

이를 다시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그대로 사용하였고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교사 상호작용과 유아-유아간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β=.42, p<.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1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와 유아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행동조절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유아-교사 상호작용(β=.25, p<.001),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β=-.13, p<.05), 유아와 유아간 상호작용(β=.13, p<.05)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N = 358)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B	β	B	β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27	-.19***	-.21	-.13*
interaction	teacher -child	.54	.42***	.39	.25***
	child -child	.09	.06	.21	.13*
F		38.25***		17.56***	
R^2		.24		.13	
$adj.\ R^2$		.24		.12	
VIF		1.00/1.32		1.00/1.32	

*p<.05.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영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교사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면 본 연구의 결과로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활발할수록 유아는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금안, 나옥희의 연구[29]와 같은 결과이다. 교사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30].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교사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러나 하위요인별 분석의 결과에서 유아-유아간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기 정서조절에는 성인과의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31] 유아기 정서조절은 또래보다는 성인으로부터의 이해와 포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논의하면 부모의 스트로크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명숙의 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행동적 통제와 달리 의도적 무시와 거절, 애정철회 등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 James와 Jongeward[33]에 의하면 유아는 양육자의 부정적 반응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며 이는 자기조절의 미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심리적 통제를 이용한 훈육을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을 뿐 가치가 내면화된 자율적 조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자녀를 훈육할 때 유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관점을 수용해주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영향력의 크기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한 유아는 행동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과는 달리 행동조절에서는 유아-교사 상호작용 뿐 아니라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한은숙, 허혜경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4]. 교사는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서 모델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놀이의 상황에서 유아는 또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처기술이 없어 놀이가 단절될 때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행동조절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는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공격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한송이, 장석진[3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양

육자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욕구충족이 미흡하게 되고 이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녀의 발달은 양육 지식이나 기술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35]. 그러므로 부모의 훈육방식에 있어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보다는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여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고 자녀의 욕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훈육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호작용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이론적인 강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36]. 이론이 현장에서 상호작용 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상호작용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을 평가하는 지표에도 교사의 상호작용 부분에 대한 점검이 다양해지고 이것이 교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육자는 원가족에서의 훈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강한 훈육방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근래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족지원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의 제약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을 통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교사 상호작용 설문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응답에 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응답 이나 관찰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좀더 다양한 환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변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사회화와 관련되어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인만큼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모나 교사의 훈육, 또는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더 심층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달리 어머니 변인과 교사 변인을 함께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1] R. M. Berns,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7th ed.)", Balmont, CA: Wadsworth, 2006.

[2] B. D. Perry,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vol.16, no.1, pp.26-29, 2001.

[3] M. J. Kostelnik, A. P. Whiren, A. K. Soderman, & K. M. Gregory,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Learning", Seoul: Cengage Learning Korea, 2009.

[4] C. B. Kopp,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 no.2, pp.199-214, 1982. DOI:http://dx.doi.org/10.1037/00121649.18.2.199

[5] O. S. Yang, "Free Choice Education Starting in Early Childhood", Paju: Changjisa, 2004.

[6] N, Eisenberg, C. Valiente, & N. D. Eggum, "Self-regulation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21, no.5, pp.681-698, 2010. DOI: http://dx.doi.org/10.1080./10409289.2010.497451

[7] M. B. Bronson,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ature", NY: The Guilford, 2000.

[8] C. B. Kopp, "Regulation of De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5, pp.343-353, 1989.

[9] M. Marion. (2007). Guidance of Young Children", New York: Macmillan, 2007.

[10]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11] J. I. Min, S. Y. Han,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9, no.4, pp.117-137, 2012.

[12] L. L. Stone, R. Otten, J. A. M. A. Janssens, B. Soenens, E. Kuntsche, & R. C. M. E. Engels, "Doe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e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An Examination using the Berkeley Puppet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37, no.4, pp.309-318, 2013. DOI: https://dx.doi.org/10.1177/0165025413490865

[13] T. Sabol, R. Pianta, "Recent Trends in Research o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14, no.3, pp.213-231, 2012. DOI: https://dx.doi.org/10.1080/14616734.2012.672262

[14] E. S. Han, H. G. Huh, "A Study on Influences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eacher's Efficacy on Peer Interaction",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vol.26, no.2, pp.53-70, 2016.

[15] S. Y. Shim, S. A. Lim,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 Efficacy,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Meditation Effect of Child Temperament ",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4, pp.353-369, 2017.

[16] S. H. Choi, H. J. Hwang, "Relationship of the Quality of Teacher-Preschooler Interaction to the Maladjusted Behaviors of Preschoolers", The Korean Society for Children's Media, vol.10, no.3, pp.1-18, 2011.

[17] J. K. Yoo, " Influence of Job Stress in Kindergarten Teacher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on a Appropriate 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3.

[18] D. Philips, K. McCartney, S. Scarr,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4, pp.537-543, 1987.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3.4.537

[19] M. Y. Kim, "Child Development", Paju: Jeungminsa.

[20] S. Y. Jeon,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5, no.4, pp.169-179, 2007.

[21] S. Bredekamp,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and Procedures of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for Early Childhood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ryland University, 1985.

[22] S. D. Holloway, M. Reichhart-Erickson, "The Relationship of Day-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3, no.1, pp.39-53, 1988.

[23]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Teacher-child Interaction Profile Tool",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14069&startPage=0&listNo=1&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ubject&search_order=상호작용&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2015.

[24] A. Shields, D. Cicchetti,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3, no.6, pp.906-916, 1997.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33.6.906

[25] J. Y. Kim,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7.

[26] J. H. Gralinski, C. B. Kopp, "Every Rules for Behaviors: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no.3, pp.673-584, 1993.

[27] M. D. Kalpidou,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during the Preschool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97.

[28] E. J. Jeung,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Behavioral/ Emotional Regulation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29] G. A. Cha, O. H. Na,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ren's Servant Leadership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on Children's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4, pp.279-302, 2016. DOI: http://dx.doi.org/10.22155/JFECE.23.4.279.302

[30] Y. H. Kwon, "The Moderation Role of Teacher-child Conflictual Relationship o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eer Interaction", vol.32, no.2, pp.29-48, 2012.

[31] R. A. Thompson, M. Goodman,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More than Meets the Eye. In A. M. Kring & D. M. Sloan(E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New York: Giliford, 2010.

[32] M. S. Han, "The Effect of Parent's Stroke on Children's Personality, Self-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3. pp.49-72, 2015.

[33] M. James, Jongeward, "Born to Win Reading Mass: Transactional Analysis with Gestalt Experiment", Addisim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1.

[34] S. Y. Han, S. J. Cha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4, pp.459-479, 2015.

[35] H. K. Wang, S. Y. Han, "Effects of Mother's Neuroticism,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7, no.1, pp.41-53, 2013.

[36] S. J. Kim, "A Study on Teacher Education Programs on Teacher-Child Inter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4, pp.647-654, 2018.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부모자녀관계, 보육행정, 아동발달

최 윤 희(Yun-Hee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부모자녀관계, 아동발달과 환경